

대학생 '등골 브레이크' 신학기 책값

전공서적 등 수십만원씩 지출 부담에 대여·복사·직거래 등 대안찾기 골몰

불법제본·절도 행위 잇따라

송진(여·23·조선대 글로벌법학과 4년)씨가 새 학기 들어 지출한 전공서적 구입비는 11만 8000원 정도다. 형법각론(4만 7000원), 영어(5만 2500원), 사회과학통계(1만 8500원) 등 반드시 사야 할 것만 선별해 구입한 게 이정도다.

송씨의 경우 그나마 이공계에 비해 나은 편이다. 자연·공학 계열 학생들의 경우 한 권에 4만~7만원짜리 책을 구입하다보면 수십만원이 넘는다. 학생들의 '등골 브레이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내용이 별로 없는데 책값만 매년 올라가는 게 아깝다며 선배들에게 중고책을 얻

거나 도서관에서 장기 대여하는가 하면, 아예 새 책을 복사·제본해 돌려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심리를 이용, 전공 서적을 훔쳤다가 신학기에 맞춰 '중고'로 내놓았다가 붙잡히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싸게, 조금만 더 싸게=조선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전공 서적을 직거래하겠다'는 글이 하루에 20~30건에 달할 정도로 끊이지 않는다. 'A+(최상)~C-'등급으로 책 상태를 매겨 희망가격, 구입시기, 판매자 연락처, 거래장소와 방법 등을 올려놓으면 필요한 학생이 연락해 판매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인문계열 4학년생인 A씨는 이 학교 '알뜰장터' 사이트에서 3만 4000원짜리 전공 서적을 55%

할인된 1만 5000원에 사는 '득템'에 성공했다.

광주·전남 대학 14곳을 비롯한 전국 대학 161곳의 전공 서적을 사고 파는 온라인 시장 '북장터'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반영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학생들 부담을 고려해 일부 교수는 강의에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도록 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나 웹하드에 매주 수업자료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교재비 절약을 돕고 있다. 1만 5000원짜리 책을 교수에게 사면 할인 받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다.

▷수요가 있으니 불법도=대학생들의 서적 구매비 부담 등을 감안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광주동부경찰에 붙잡힌 이모(22)씨는 조선대 학생 사물함에 전공 서적을 훔쳐 되팔아왔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전공 서적 227권(시가 517만원 상당)을 대학을 돌며 훔친 다음 새 학기에 맞춰 중고 거래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시가보다

30~70% 가량 싸게 팔아왔다. 새책 구매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노린 범행으로, 올릴 때마다 찾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이씨는 경찰에서 진술했다.

교재의 절반가격도 안돼 교재구입에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복사가게에 부탁을 하거나 복사가게가 과목 담당교수의 교재를 파악해 대규모로 복사하는 방법 등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22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광주 대학가에서 적발되는 불법 복제물은 매년 급증세다.

저작권보호센터는 광주지역에서만 지난 2012년 835점의 불법 복제물이 적발된 것을 비롯, 2013년 947점, 지난해 1784점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도 서울, 충남, 경기도 이어 4번째로 적발된 불법 복제물이 많다는 게 저작권보호센터 설명이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확찬 대학입시 설명회

EBS와 광주 동구청이 주관한 '2016학년도 EBS 광주지역 입시 설명회'가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EBS 입시 설명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학생·학부모들이 최경석(대원고 교사) EBS 대표강사의 입시전략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김신영 수능개선위원장 "문항 난이도 비율 체계화"

"수능 난이도는 최상위(1등급)가 아닌 60만 수험생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고민해야 한다. 최상위 수준에서 난이도를 고민할 수는 없다."

김신영 수능개선위원장(한국외대 교육학과 교수)은 지난 20일 전남대 용지관에서 열린 '수능출제유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2차 공청회에서 "변별도를 갖

추했다는 것이지 난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수능개선위원회의 난이도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수능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김 위원장은 "최상위권이 실수로 틀렸다는 상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항의 질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의미였

다"며 "문항의 난이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들쭉날쭉하는 난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항을 5가지 척도(아주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아주 쉬움)로 분류해 그 비율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문항정보를 수집해 제공해야 한다"며 "정보가 축적되면 난이도 논란은 해소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9월 모의평가 분석

결과가 수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선 광주국체고 학부모는 "출제위원들이 교수로 집중돼 있어 현장과 유리되는 면이 있다"며 "출제위원에 현장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개선위 시안과 2차례의 공청회(1차 서울, 2차 광주)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수능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개선안은 2016학년도 수능시험계획에 반영되며,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3, 해질 18:46, 달뜨기 08:24, 달지기 22:05

아침기온 특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2/11	보성	맑음	0/12
목포	맑음	1/8	순천	맑음	2/13
여수	맑음	2/12	영광	맑음	1/8
나주	맑음	1/11	진도	맑음	2/9
완도	맑음	4/11	전주	맑음	0/11
구례	맑음	0/12	군산	맑음	-1/8
강진	맑음	2/12	남원	맑음	-2/11
해남	맑음	1/11	홍산도	맑음	4/7
장성	맑음	0/10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0.5~1.5
남부	남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0~2.0
남해	남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서부	남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생활지수

수면	80
운동	8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4:12	16:27	09:18	21:34
여수	11:09		04:50	
	23:34		17:08	

주간 날씨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	☀	☀	☀	☀	☀	☀
0/12	-1/16	2/17	4/18	7/17	7/17	7/17

광주·전남 '꽃샘추위'... 미세먼지도 기승

완연한 봄 기운을 보였던 주말과 달리 광주와 전남에 갑작스런 '꽃샘 추위'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 지역은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농도도 높을 것"이라고 22일 예보했다.

23일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다소 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8도~13도로 전날보다 기온이 4~7도가량 더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 또한 '매우 나쁨'(PM10 151㎍ 이상·PM2.5 101㎍) 수준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는 25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며 "갑작스런 '꽃샘 추위'에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서구청 '노점상과의 전쟁'

U대회 앞두고 대대적 단속 일부선 '보여주기식' 지적도

광주시 서구가 안전도시국 전 직원을 동원, 노점상과의 전쟁을 벌인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불법 노점상 철거 뿐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로 '노점상 이용 안하기' 운동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만한 게 노점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광주시 서구는 22일 '안전도시국 전 직원이 함께하는 노점 및 노상적지물 정비 계획'을 수립, ▲풍암·금호 사거리

▲운천로 ▲풍암동 주민센터 ▲유촌동 벚들마을 등 주택·상가 밀집지역 4곳의 노점상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무단으로 인도와 도로를 점유, 주민·차량 통행 불편은 물론, 환경 오염까지 초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구청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노점상 입장에서는 생존 문제가 걸렸음에도, 국제행사를 내세워 보여주기식으로 단속하겠다는 구청의 형식적 방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생물 절편 600g 80,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구중구포 절편 600g 120,000원
- 환 1kg 36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010-2632-779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